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

(사 49:14-21)

The Existence Engraved on the Palms of Hands

(Is. 49:14-21)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설명하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마 23:37)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적인 면에서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사49:15).

어머니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사 49:13)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늘 어머니가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안 보이나요? 하나님, 결국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요?”라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할 것이라”(사49:15)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 49:16).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문신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큰 성벽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어미를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범죄했고, 허물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요 또한 부패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춤추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3-4).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자녀는 뒷모습만 봐도 단 번에 알아보는 우리의 어머니처럼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 뒷모습만 봐도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그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 is not only explained as the Father but also is equally taught as the Mother in the Bible.

By looking at Jerusalem that would be corrupted very soon, Jesus said,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Matt 23:37). And he gave prominence to God's love in mother's affection.

God's maternal love is well displayed in the text.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under child she has borne?" (Is 49:15)

It is our God who embraces us in His warm breast like a mother.

Isaiah, the prophet declares, "O heavens; rejoice O earth; burst into song, O mountains! (Is 49:13) This is because our heaven's mother embraces us and comforts us.

We are sometimes discouraged like the followings. "God, did you forget me? God, can you not see me having a hard time? God, finally, will you throw me away?"

However, God's response is, "Can mothers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Is 49:15)

"See,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your walls are ever before me," (Is 4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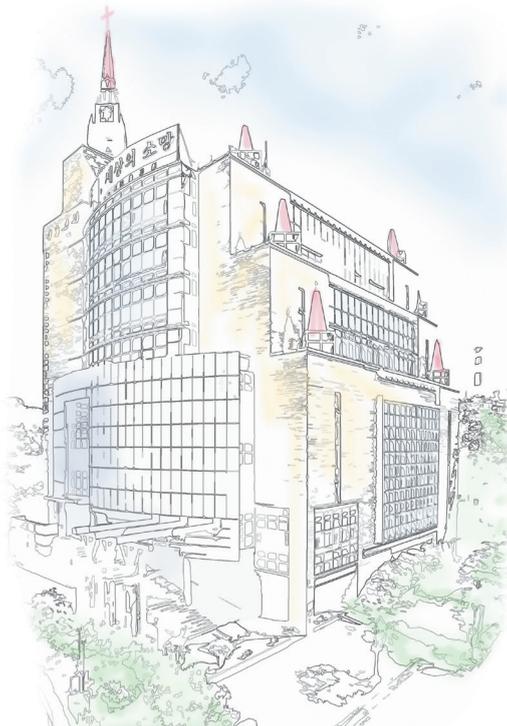
Our existence is engraved on God's palms just like a tattoo. Our existence never disappears before God. It is before God like a wall. He looks at us, hears our prayer, and holds us.

Isaiah chapter 1 explains that we who are God's children have rebelled against him. Even animals know their mothers but because we did not know God and committed a crime, we were called a people loaded with guilt, a brood of evildoers, and children given to corruption. However, for now, it says that we sing, be joyful, and dance. For God like a mother embraces us, gives compassion on us, and gives His unconditional love.

My beloved Christians,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Ps 121:3-4).

It is our God who neither sleep nor drowse even a minute. No matter how many people there are, just like our mothers who recognize at once, even though they look at their children's back, among 7 billion population of the world. It is just our God who recognizes me, even though he looks at the back of us.

God's eyes stay on us. God who gladly gave his life for us, and who is our eternal mother loves us and is responsible for us to the end. With this mother's love, by embracing the breast of God who invites us, I sincerely hope that all of you enjoy God's peace and compa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 전반기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 오늘 오후 4시, 본당 / 장학금 수여식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61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

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31명

한동주 박성수 김성은 김성경 신원열 김민정 7 정상준 허소정 차주호 양문열 송채원 조영제 임채연 장재혁 김재욱 이상현 김수정 장지윤 김현지 최희진 김영기 이예원 안제인 최희연 하유진 임주빈 김휘 한동민 박소연 류한희 마

건영

· 고등부-10명

김은초 정예빈 김미르 박민수 마승완 송윤희 황수지 문예립 고하영 이우진

· 디아스포라부-3명

김윤미 김수진 조영금

· 교역자·선교사·직원 자녀-11명

황성진 김지혜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우성은 조채린 조라혜 이평화 이지행 임재우

· 호산나전문대학-6명

나동원 성동제 방준혁 김우영 양현준 서보현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서울교회는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 년 전, 하반기 서울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해 왔다.

2016년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기간은 2016년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10,000원이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

박정인(1) 문창희(10)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출애굽기와 구속사	목, 저녁 7:00~8:00	박영준 목사	602호
	바울옥중서신	금, 오전 6:10~7:00	황 광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유문건 목사	501호	
선교대학(8주) (3/7~4/25)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1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1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영준 목사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3/20~4/17)	주일, 오후 3:30~4:30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학교 (3/6~6/19, 9/4~10/23)	주일, 오후 1:00~1:50	임규현 목사	609호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서울 아가학교	목, 오전 10:30~12:30	구본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9/5~11/7)	양세라 목사	702호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 II

(고후 1:3-9)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혹은 땅위의 어떤 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고, 오히려 그 기쁨이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하고 그 가져온 기쁨 때문에 가슴을 쳐야할 일이 수없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요 내 몸이 비록 썩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쳐흐르는 기쁨인 것이다.

그러면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1.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행복을 가능하다고 생각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이와 같

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고후 1:3).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특징 중의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는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2.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가 곧 죽은 자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평강을 누린다.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을 갖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자신을 짓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시 19:8). 우리의 마

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는 즐거움이 넘친다.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고난을 이기고 기뻐한다(출 13:9).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이기고 기뻐한다(신 6:4-9).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기뻐한다(신 11:18-21).

결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잘 통과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앙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인격은 연단을 받아 성숙하고 온전케 될 것이며 겸손히 자기성찰을 할 수 있어 철저한 회개와 겸허한 인격을 됴므로 얻게 될 것이다. 고난을 먼저 받으므로 고난을 받는 다른 형제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 같은 고난을 바르게 이기는 비결은 훌륭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잘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

(다음주 계속)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2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해 부활절은 3월 27일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천국시민양성 - 유치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김성은 성도 (유치부 교사)

유치부는 아이들에게 일상 속 성경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 중 하나로 모든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암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성경 구절 속 단어들과 내용들, 적지 않은 구절의 범위이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읽어보고 암기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 설교가 끝난 후 분반공부하기 전 성경암송 담당교사와 함께 10~15분의 시간을 가지고 평균 3절 정도의 성경구절을 읽어주고 반복해서 따라 읽고 외워줍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앞에 나와 마이크를 들고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만큼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성경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교



사들도 함께 앉아 참여하고, 암송시간 동안 비타민을 주기도 하고 칭찬도장을 찍어주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이 주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읽기 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읽기 표는 매주 배운 1~2절의 성경 구절을 부모님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읽고 말씀 내용을 떠올리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성경읽기를 한 아이들은 읽기 표에 체크하여 돌아오는 주일에 가져와 아이들 앞에 서서 칭찬과 박수를 받고 있습니

다. 현재 4주차가 되어 많은 아이들이 암송시간에 적응해가며 부모님과 읽기 표를 해오는 아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아이들이 흥미를 계속 가지도록 노력하며 암송시간으로 인해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유치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붙들려 살아갈 다음 세대인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천국시민양성 - 유년부

오직 말씀!



이근대 집사 (유년부 부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선택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며, 최상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어코 다시 일어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999년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주일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직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오직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겠지요. 또한 유년시절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 습관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저의 안타까운 오류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시절 순수한 아이들의 믿음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의 어른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좋으실만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

길 바랄뿐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저희 유년부는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를 모두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이번 성경 암송대회를 통하여 우리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여 다가올 미래에 그 귀한 습관과 쌓인 에너지로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사랑하며 또한 공휴일이 여기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청년들이...

이종범 성도 (청년2부 회장)

2016년을 시작하며, '서울교회 청년들이 몸뚱 교회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주일이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이면서, 그에 반해 일손이 많이 부족한 교회 식당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주일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청년부 내에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고, 조금은 힘든 것이라는 생각에서인지, 계획하고 시작하기까지 우려와 염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해 보면, 힘든 봉사의 자리에 청년들이 꼭 필요하고, 청년들이 작게나마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두 번의 청년부 국내전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감사함과 보람을 알기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시간동안 정신없이 바쁘지만, 저희 청년들을 반겨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며, 다가와 주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덕분에 잘 적응하면서 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힘들게 일하시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시는 장년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경험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은 10년 넘게 봉사를 해오며, 이렇게 청년들이 와 주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꿈만 같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 얼마나 힘들셨을까?' 하는 생각과 저희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청년부가 앞으로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나가며, 부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7일(수)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 기자회견을 갖는다. 19일(금) 한국기독교박물관 추진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 주일식당봉사 : 이사선교회(2.14) 모세선교회(2.21)

■ 금주의 식사 제공 : 이경구 집사 이채봉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사랑부 : 2월 14일(주) / 서울교회

청년 1·2부 : 2월 18일(목)~20일(토)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바르게 믿어요!	박노철 목사 구분혜 전도사
유치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순종할래요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청년1부 청년2부	2월 18일(목)~ 20일(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노철 목사 정요셉 목사 (전 안양제일교회 대학부 총괄) 서준권 목사 정대은 목사 장재원 전도사
사랑부	2월 14일(주)	서울교회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27일(토)	서울교회	사랑과 섬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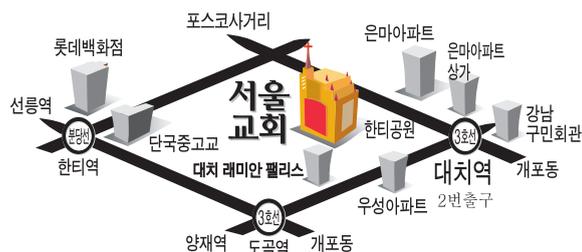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첫째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2. 2월 16일(화) 오후 7시에 있는 간호사관학교 졸업 감사예배를 통해 모든 졸업생들이 군복음화의 사명자로 파송될 수 있도록
3. 2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계속되는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